

젠더와 위험회피성향, 금융이해력 및 금융상품보유의 관련성

(Gender Difference in Risk Aversion,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김성숙(계명대 부교수)
이윤금(Utah State Univ. Professor)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계경제 및 재무행동 분야에서 젠더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상당수 젠더와 가계경제 및 재무관련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위험회피적이며 이로 인해 투자성 금융상품 선택과 보유정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여성이 금융상품선택과 보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 여성이 투자성 금융상품 선택과 보유를 꺼리는 이유가 위험회피적 성향 이외에 이에 대한 정보 및 이해력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재무행동 분야에서 젠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소비자피해 사건들은 2011년에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3년에 발생한 LIG와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부도,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유출이다. 이러한 일련의 금융피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 피해규모도 매우 컸기 때문에 국민전체가 금융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금융소비자피해에 있어서 여성과 고령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의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신고건수 1만 9904건 가운데 70%가 여성이었으며 40대 이상 투자자는 74.5%이며 60대 이상 고령자는 22%나 되었다(한국경제, 2013. 12.26.).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동양 기업어음(CP) 판매 논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등의 주요피해자가 금융 취약계층이란 판단에 따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¹⁾. 여기서 금융 취약계층이란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 사건들과 이에 따른 일련의 정부당국의 조치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여성이 금융상품선택과 보유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펀드열풍 속에서 주부 등 여성들의 참여도가 유독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이 이를 반영한다. 둘째, 여성이 금융소비자 피해의 주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여성이 금융소비자피해의 주요 대상이 된 배

1)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동양 CP 등)로 인해 상품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의 피해가 속출한다고 판단하였다.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의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불완전판매 등의 사전차단이 중요하므로 그간의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고령층(60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은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미비보다는 여성 금융소비자의 능력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비자피해를 더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대출영역이나 연금, 은퇴준비, 투자 분야에서 젠더 이슈들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성향이 높으며 금융이해력이 낮고 투자성 금융상품을 덜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젠더의 순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과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게도 적용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할 때 성별 차이를 중요하게 채택하는 경향은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회피도와 금융이해력 및 금융상품선택에서 젠더의 차이를 규명하되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하여 젠더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금융이해력의 하위영역인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영역에서 젠더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선택에서도 대출, 보험, 투자, 연금(은퇴상품)에서의 보유에서의 젠더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학술적으로 금융시장 및 재무행동 분야에서 젠더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향후 금융시장에서 여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행동 등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은행의 성인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²⁾, 성별(남성 14.3점, 여성 14.2점) 금융이해력 격차(0.1점)는 미미하였으며 여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4개국의 성별 금융이해력(OECD, 2012) 평균은 각각 남성 14.1점, 여성 13.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0.4점 높게 나타났었다. 부문별로는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에서 여성의 점수가 높은 반면 금융지식 면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을 상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99%)이 INFE가 선정한 14개 금융상품 중 5개 이상의 금융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금융상품에 대한 인지여부에 있어서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지수 모의테스트 결과(천규승, 2011), 정답획득률이 남학생이 49.1%로 여학생 39.1%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항별 배점을 적용한 후 점수를 환산할 경우는 여학생이 37.7, 남학생이 37.6으로 차이가 없는

2) 각 항목별 조사결과에 대해 **OECD INFE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만점 : 22점*), 이를 기준으로 금융이해력 측정을 하였고 기 실시한 14개국과 비교 분석함.(금융지식 8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5점)(한국은행, 2013. 1 보도자료.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항의 정답률이 높다고 해석되며, 남학생은 상식적으로 넓은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모의테스트 연구자는 여학생의 경우 기술가정 과목을 통해 개인재무관리와 실제금융생활 기능을 습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이미 중학교과과정에서 남녀 모두 기술가정을 배우고 있는 시기이므로 교과과정의 수강여부보다는 다른 사회화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젠더에 따라 위험회피성향과 금융상품 선택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jtelsmit, V. L. & Bernasek, A.(1996)은 1989년 소비자금융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확정기여형연금(퇴직연금)에 자산을 배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성향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확정기여형연금투자에서 위험회피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taut, Carol C.1. (1998)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소비자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보유 자원이 많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경우 1983년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가계는 1989년 주식을 보유할 확률이 높으며, 보유자원이 적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1983년에 주식을 보유하였던 가계는 1989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계는 주식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하는데 투자시장에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로 인한 이익보다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Bertaut의 연구를 성별 차이에 적용해 본다면 성별 자체보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성향이 높기 때문에 투자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Barber, Brad M. and Odean, Terrance(2001)는 35,000명의 투자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과신이 있는 투자자가 과도하게 투자할 것이라는 가설 검증하였다. 1991년 2월부터 1997년 1월까지 공통적으로 투자구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투자거래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투자거래량이 45% 더 많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연간 2.65%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1.72% 증가하였다.

Graham & Stendardi(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중요한 한두 가지 단서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Dwyer, Peggy D.1 Gilkeson, James(2002)는 2000명의 펀드투자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펀드투자결정에 나타난 위험수용성향 차이를 파악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펀드투자에서 위험수용성향이 낮으며 이는 금융지식을 통제한 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Felton, James, Gibson, Bryan, and Sanbonmatsu, David M.(2003)은 낙관주의와 성별이 대학생의 모의투자행동에서의 위험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성별차이를 나타내는 사회화의 역할, 그리고 건강과 투자에 대한 낙관주의가 위험선호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son, John and McNaughton, Mark(2007)는 은퇴자산 투자에서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호주 대학 직원들의 연금펀드의 위험선호도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금펀드투자에서 더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하였다.

Lusardi, A and O.S. Mitchell(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들 가운데 위험분산에 대한 지식을 알 경우 재무 설계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자율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경우 재무 설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교육, 결혼 지위, 인종 등 변수를 통제한 이후의 결과이므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거나 고령 여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재무 설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lvet, Laurent E, Campbell, John Y, and Sodini, Paolo(2009)은 스웨덴의 가계금융에 초점을 두고 가계의 투자실수와 가계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더 부유하고 더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가 더 분산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Michael S. Finke, John S. Howe, and Sandra J. Huston (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이해력 감소는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능력은 감소하지만 주관적 자신감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신용저하, 낮은 투자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Adhikari, Binay and Virginia E. O'Leary (2011)는 네팔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성향이 높으나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같은 관련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Ricciardi, Victor(2011)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걱정(worry)이 많아 위험수용도가 낮다'라는 과거의 연구에서 발전하여 위험 심리학을 제안하였다. 그는 여성은 금전, 재무설계, 투자의사결정에서 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준영, 정지영(2011)은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하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경옥과 박귀영(2013)은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감수도가 높다고 하였다.

Demirgüç-Kunt, Asli, Leora F. Klapper, and Dorothe Singer(2013)은 98개국 개발도상국가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료(the Global Financial Inclusion (Global Findex) database)를 사용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좌보유, 저축과 신용상품의 이용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 교육, 고용상태, 농촌거주, 연령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별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과 성규범이 여성의 금융접근성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해 준다. 여성이 일할 능력, 가장역할, 거주선택, 유산상속에서 법적 제약을 가진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축과 대출은 물론 계좌를 덜 가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조혼풍습과 같은 성적규범의 영향은 개인과 국가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녀 간 금융서비스의 이용의 편차를 설명해준다.

Lee Kevin, Scott Miller, Nicole Velasquez, and Christi Wann (2013)는 84명의 금융회계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성별에 따른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수용도가 높아 금융의사결정행동과 투자

성과에서 더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실태 조사결과(2013. 8. 2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별 사금융 이용비율은 남자가 3.4%로 여자의 2.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대출금의 용도는 남자의 경우 사업자금·도박 등의 빚 청산이고, 여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상환, 자녀 또는 동생 등의 가족 카드 빚 청산,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젠더에 따른 위험회피도와 금융이해력, 금융상품선택을 분석할 때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같은 배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1> 여성과 남성의 위험회피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1>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의 위험회피성향은 남성보다 높다.

<연구문제2> 여성과 남성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2-1>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의 금융지식 수준은 남성의 금융지식 수준보다 낮다.

<가설2-2>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의 금융행동수준은 남성의 금융행동 수준보다 낮다.

<연구문제3> 여성과 남성의 금융상품 보유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3-1> 여성의 대출상품의 보유 수준은 남성보다 낮다.

<가설3-1> 여성의 보험의 보유 수준은 남성보다 낮다.

<가설3-2> 여성의 투자성 금융상품의 보유 수준은 남성보다 낮다.

<가설3-3> 여성의 연금 상품의 보유수준은 남성보다 낮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방법과 조사도구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조사는 2013년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 업체인 한국

리서치를 통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 결혼 이민자는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신뢰도 분석과 위험회피도, 금융지식, 행위, 태도에 대한 수준과 파악하기 위해 SPSS 23.0 program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 공분산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회피문항은 Adhikari, Binay and Virginia E. O'Leary(2011), 최준영과 정지영(2011), 허경옥과 박귀영(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금융이해력과 금융상품보유 관련 문항은 OECD (2012), 한국은행(2013), 천규승(2011)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위험회피성향을 묻는 문항,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을 묻는 문항, 금융상품보유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위험회피성향은 '나는 저축과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을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로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금융지식은 금융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에 대한 문항으로 총 5개의 하위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지식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는 금융경제 기초, 신용 및 부채, 금융 거래, 세금 관리, 부동산 거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금융 경제 기초 영역은 총 8개 문항으로 금융관련 사칙연산, 화폐의 시간적 가치, 대출 이자 개념, 인플레이션의 의미, 위험과 수익의 관계, 원리금 계산, 복리 개념, 분산투자 효과로 구성하였다. 신용 및 부채 영역에서는 개인신용등급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였고, 금융 거래 영역은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상품, 사회보험제도, 노후소득보장,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사기 '파밍'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금 관리 영역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영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문화 성인의 경우 금융 시장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관리 영역의 측정 문항인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의 결과 0.70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금융행위는 성인 소비자들이 금융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지 측정하는 것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총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금융행위 영역의 하위 영역은 소득과 지출관리, 재무설계의 실행, 신용 및 부채 관리, 금융상품 거래 영역이다. 하위영역별 문항은 구성을 보면 우선 소득과 지출 관리 영역에서는 구매 전 지불 능력 점검 행위, 각종 대금의 적기 납부, 1년간 저축 경험, 가계 예산 수립(2개 문항), 비상대출 대비, 생계를 위한 전략 행위(2개 문항)에 대한 측정하였다. 재무설계 실행영역은 평상시 재무상황 점검 행동, 재무목표 설정과 관리, 은퇴 준비 계획, 대출 전 상환 능력 점검으로 구성하였으며 신용 및 부채 관리 영역에서는 신용카드 관리행동과 개인신용등급 관리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상품 거래 영역은 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그 내용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보험 및 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시 주의 행동을 포함하였다. 금융행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의 결과 0.80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금융태도는 성인 소비자들의 자산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측정으로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금융태도 측정 문항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태도, 현재에 대한 선호, 돈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 금융태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의 결과 .75로 약간 낮았다.

금융상품 보유척도는 표에 제시된 금융상품 각각에 대한 현재 보유정도와 지난 일 년 동안 선택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금융상품에는 선불카드, 신용카드, 모바일/인터넷 뱅킹계좌, 저축예금, CMA, 펀드, 주식, 채권, 주가연계상품, 개인연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민간건강보험, 실손 보험, 변액보험, 장기주택담보대출, 소액대출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1>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변수명	정의	척도	문항수	신뢰도
위험회피성향	저축과 투자시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	5점척도(매우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성향이 낮아짐	1	
금융이해력	건전한 금융의 사결정과 금융 복지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를 의미			
- 금융지식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	금융관련 사칙연산, 화폐의 시간적 가치, 대출 이자 개념, 인플레이션의 의미, 위험과 수익의 관계, 원리금 계산, 복리 개념, 분산투자 효과, 개인신용등급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상품, 사회보험제도, 노후소득보장, 예금 자보호제도, 금융사기 '파밍' 지식, 근로 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영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정답=1점)	19	.70
- 금융행동	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 양식	구매전 지불 능력 점검 행위, 각종 대금의 적기 납부, 1년간 저축 경험, 가게 예산 수립(2개 문항), 비상대출 대비, 생계를 위한 전략 행위(2개 문항), 평상시 재무상황 점검 행동, 재무목표 설정과 관리, 은퇴 준비 계획, 대출 전 상환 능력 점검, 신용카드 관리행동과 개인신용등급 관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보험 및 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시 주의 행동 정도(4점 척도)	18	.80
- 금융태도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	저축과 소비에 대한 태도, 현재에 대한 선호, 돈에 대한 태도(4점 척도)	3	.75
금융상품보유	각 금융상품종류별 현재 보유 여부	선불카드, 신용카드, 모바일/인터넷 뱅킹 계좌, 적금/정기 예금, CMA, 펀드, 주식, 채권, 주가연계상품, 개인연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민간건강보험, 실손보험, 변액보험, 장기주택담보대출, 소액대출(보유=1)	각 1문항	
소득수준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가계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구간별로 조사하였고 공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시에는 구간 중간값으로 변환한 후 사용함	1	
교육수준	최종 학력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학졸로 측정하였으며, 공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시에는 교육년수로 변환한 후 사용함	1	
연령		실제 만 나이를 측정함	1	

2)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

<표 2> 성인 응답자의 개인 특성 (n=317)

항 목	내 용	빈 도(%)	항 목	내 용	빈 도(%)
성별	남자	157(49.5)	학력	중졸 이하	67(21.1)
	여자	160(50.5)		고졸	108(34.7)
연령	20대	54(17.0)		대졸이상	136(43.7)
	30대	56(17.8)	직업	자영업	44(13.9)
	40대	55(17.4)		생산/판매직	54(17.0)
	50~64세	59(18.0)		사무/행정/전문직	76(24.0)
	65세 이상	93(27.9)		전업주부	81(25.6)
거주 지역	서울시	281(84.4)	결혼 상태	기타	62(19.6)
	경기도	36(10.8)		미혼	61(18.3)
주 노동시간	30시간 이하	6(3.4)		기혼	241(72.4)
	30초과~40시간 이하	53(30.5)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01(31.9)
	40초과~50시간 이하	71(40.8)		200~600만원 미만	139(43.8)
	50시간 초과	44(25.3)		600만원 이상	77(21.5)

V.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일원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별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 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가정 검정을 위해 Levene의 동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연령, 소득수준을 각각 통제한 후 성별과 위험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3>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차이

위험감수 성향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유의수준
성별	남	157	1.89	.78	.06	1.00	6.61	.011
	여	160	1.71	.70	.05	1.00		
	전체	317	1.75	.75	.04	1.00		

종속변수: 위험회피성향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7.526	.000	R 제곱 = .111 (수정된 R 제곱 = .103),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60.583	.000	
	성별	.026	.872	
	성별 * 교육수준	.131	.718	
	교육수준	17.235	.000	
연령	수정된 모형	13.955	.000	R 제곱 = .118 (수정된 R 제곱 = .11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388.006	.000	
	성별더미	1.691	.194	
	연령	36.144	.000	
	성별더미 * 연령	.148	.701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0.640	.000	R 제곱 = .093 (수정된 R 제곱 = .084),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064	.800	
	성별	.653	.420	
	소득수준	26.305	.000	
	성별 * 소득수준	.234	.629	

2. 성별에 따른 금융지식 수준 차이

일원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금융지식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금융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영역인 신용지식 영역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금융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경제기초지식과 금융거래지식 영역에서는 여자와 남자 간에 금융지식수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별에 따라 금융지식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가정 검정을 위해 Levene의 동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각각 통제한 후 성별과 위험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라졌다. 교육수준은 금융지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라지고 연령, 그리고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라지고 소득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성별에 따른 금융지식수준 차이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유의수준)	
금융지식 총점	남	157	11.40	3.16	.25	1.00	17.00	2.31	.021
	여	160	10.57	3.30	.24	1.00	17.00		
	전체	317	10.89	3.26	.17	1.00	17.00		
금융경 제기초	남	157	6.29	1.43	.11	1.00	8.00	1.86	.065
	여	160	5.98	1.57	.11	.00	8.00		
	전체	317	6.09	1.51	.08	.00	8.00		
신용지 식	남	157	1.80	.90	.07	.00	3.00	2.52	.012
	여	160	1.54	.94	.07	.00	3.00		
	전체	317	1.66	.93	.05	.00	3.00		
금융거 래지식	남	157	2.42	1.31	.10	.00	5.00	1.51	.131
	여	160	2.20	1.28	.09	.00	5.00		
	전체	317	2.29	1.30	.07	.00	5.00		

<표4-1> 성별에 따른 금융지식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전체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40.185	.000	R 제곱 = .278 (수정된 R 제곱 = .271)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82.801	.000		
	성별	1.206	.273		
	성별 * 교육수준	.410	.522		
	교육수준	105.399	.000		
연령	수정된 모형	22.733	.000	R 제곱 = .118 (수정된 R 제곱 = .11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765.002	.000		
	성별더미	.926	.337		
	연령	58.301	.000		
	성별 * 연령	4.505	.035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0.764	.000	R 제곱 = .179 (수정된 R 제곱 = .171),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6.111	.014		
	성별	.338	.561		
	소득수준	.058	.809		
	성별 * 소득수준	26.370	.000		

금융지식수준의 하위영역인 금융경제기초지식 영역은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을 각각 투입하여 공분산분석한 결과,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던 성별에 따른 금융경제기초지식 수준 차이가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와 연령을 통제한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교육수준일 경우에 성별에 따라 금융경제기초지식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연령인 경우 성별에 따라 금융경제기초지식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이후에도 성별에 따른 금융경제기초지식 수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지식수준의 하위영역인 금융거래지식 영역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후 성별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연령과 소득수준을 각각 통제변수로 포함한 경우에 성별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4-2> 성별에 따른 금융경제기초 지식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금융경제기초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31.758	.000	R 제곱 = .233 (수정된 R 제곱 = .226)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191.934	.000	
	성별	4.754	.030	
	성별 * 교육수준	3.603	.059	
	교육수준	76.582	.000	
연령	수정된 모형	18.905	.000	R 제곱 = .153 (수정된 R 제곱 = .145),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931.816	.000	
	성별	4.990	.026	
	연령	43.495	.000	
	성별더미 * 연령	10.554	.001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7.228	.000	R 제곱 = .065 (수정된 R 제곱 = .056),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23.116	.000	
	성별	.301	.584	
	소득수준	17.907	.000	
	성별 * 소득수준	.078	.781	

<표4-2> 성별에 따른 금융거래 지식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금융거래지식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19.518	.000	R 제곱 = .158 (수정된 R 제곱 = .15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4.397	.037	
	성별	.107	.744	
	성별 * 교육수준	55.019	.000	
	교육수준	.383	.536	
연령	수정된 모형	14.181	.000	R 제곱 = .120 (수정된 R 제곱 = .111),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268.353	.000	
	성별	.009	.922	
	연령	39.774	.000	
	성별 * 연령	.432	.511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7.228	.000	R 제곱 = .065 (수정된 R 제곱 = .056),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23.116	.000	
	성별	.301	.584	
	소득수준	17.907	.000	
	성별 * 소득수준	.078	.781	

3. 성별에 따른 금융행동 수준 차이

일원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금융행동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행동의 하위영역인 지출행동, 재무관리행동, 신용관리행동, 금융거래행동 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금융행동 수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 성별과 금융행동수준과의 관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가정 검정을 위해 Levene의 공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금융행동수준 차이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유의수준
금융행동 총점	남	157	9.52	3.03	.24	1.00	14.50	.26	.606
	여	160	9.69	3.00	.22	1.50	14.50		
	전체	317	9.61	3.01	.16	1.00	14.50		
지출행 동	남	157	4.60	1.43	.11	.00	7.00	.29	.587
	여	160	4.68	1.32	.09	.00	6.00		
	전체	317	4.64	1.37	.07	.00	7.00		
재무관 리행동	남	157	2.40	1.27	.10	.00	4.00	1.40	.237
	여	160	2.56	1.20	.09	.00	4.00		
	전체	317	2.48	1.24	.06	.00	4.00		
신용관 리행동	남	157	.77	.54	.04	.00	2.00	.01	.974
	여	160	.77	.58	.04	.00	2.00		
	전체	317	.77	.56	.03	.00	2.00		
금융거 래행동	남	157	1.74	.76	.06	.00	3.00	.63	.425
	여	160	1.68	.72	.05	.00	2.50		
	전체	317	1.71	.74	.04	.00	3.00		

<표5-1> 성별에 따른 금융행동수준 차이(ANCOVA)

금융행동 전체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14.443	.000	R 제곱 = .122 (수정된 R 제곱 = .113),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93.610	.000		
	성별	.030	.863		
	성별 * 교육수준	41.437	.000		
	교육수준	.000	.987		
연령	수정된 모형	1.126	.339	R 제곱 = .011 (수정된 R 제곱 = .001),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315.266	.000		
	성별더미	2.812	.095		
	연령	.392	.532		
	성별더미 * 연령	3.035	.082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7.829	.000	R 제곱 = .146 (수정된 R 제곱 = .138),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001	.982		
	성별	.513	.474		
	소득수준	53.117	.000		
	성별 * 소득수준	.607	.437		

<표5-2> 성별에 따른 지출행동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지출행위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6.398	.000	R 제곱 = .058 (수정된 R 제곱 = .049)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152.425	.000	
	성별	.310	.578	
	성별 * 교육수준	16.395	.000	
	교육수준	.597	.440	
연령	수정된 모형	.462	.631	R 제곱 = .003 (수정된 R 제곱 = -.003),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300.917	.000	
	성별더미	.817	.367	
	연령	.183	.669	
	성별더미 * 연령	.432	.511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5.368	.001	. R 제곱 = .049 (수정된 R 제곱 = .04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10.748	.001	
	성별	.153	.696	
	소득수준	15.910	.000	
	성별 * 소득수준	.156	.693	

<표5-3> 성별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재무관리행동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11.032	.000	R 제곱 = .158 (수정된 R 제곱 = .15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18.897	.000	
	성별	4.631	.032	
	성별 * 교육수준	32.027	.000	
	교육수준	3.668	.056	
연령	수정된 모형	.217	.885	R 제곱 = .002 (수정된 R 제곱 = -.007),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107.955	.000	
	성별더미	.000	.994	
	연령	.174	.677	
	성별더미 * 연령	.049	.824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9.641	.000	. R 제곱 = .158 (수정된 R 제곱 = .150),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8.061	.005	
	성별	3.210	.074	
	소득수준	55.847	.000	
	성별 * 소득수준	3.220	.074	

<표5-4> 성별에 따른 신용관리행동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신용관리행동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5.321	.001	R 제곱 = .049 (수정된 R 제곱 = .039)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11.099	.001	
	성별	.788	.375	
	성별 * 교육수준	12.881	.000	
	교육수준	.952	.330	
연령	수정된 모형	.685	.562	R 제곱 = .007 (수정된 R 제곱 = -.003),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69.337	.000	
	성별더미	1.178	.279	
	연령	.624	.430	
	성별더미 * 연령	1.473	.226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5.663	.001	R 제곱 = .051 (수정된 R 제곱 = .042),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999	.318	
	성별	.473	.492	
	소득수준	16.424	.000	
	성별 * 소득수준	.402	.526	

<표5-5> 성별에 따른 금융거래행동수준 차이(ANCOVA)

금융지식 하위영역 : 금융거래행동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13.638	.000	R 제곱 = .116 (수정된 R 제곱 = .107),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33.604	.000	
	성별	1.029	.311	
	성별 * 교육수준	35.374	.000	
	교육수준	.840	.360	
연령	수정된 모형	7.461	.000	R 제곱 = .039 (수정된 R 제곱 = .029)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284.126	.000	
	성별더미	2.366	.125	
	연령	17.695	.000	
	성별더미 * 연령	4.386	.037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2.444	.000	R 제곱 = .107 (수정된 R 제곱 = .098),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미충족
	절편	.763	.383	
	성별	.007	.936	
	소득수준	36.364	.000	
	성별 * 소득수준	.011	.918	

4. 성별에 따른 금융태도 수준 차이

일원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 성별과 돈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가정 검정을 위해 Levene의 공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결과,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이 통제될 경우 성별의 효과는 사라졌다.

<표6> 성별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 차이

독립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유의수준)
돈에 대한 태도	남	157	3.34	.68	.05	1.33	.038
	여	160	3.18	.73	.05	1.00	
	전체	317	3.26	.71	.03	1.00	

<표6-1> 성별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 차이(ANCOVA)

금융태도	통제변수	소스	F	유의확률	R 제곱
교육수준	수정된 모형		1.411	.239	R 제곱 = .013 (수정된 R 제곱 = .004)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516.045	.000	
	성별		1.584	.209	
	성별 * 교육수준		.020	.888	
	교육수준		.603	.438	
연령	수정된 모형		4.192	.006	R 제곱 = .039 (수정된 R 제곱 = .029)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565.927	.000	
	성별		.450	.503	
	연령		7.110	.008	
	성별 * 연령		1.516	.219	
소득수준	수정된 모형		1.807	.146	R 제곱 = .017 (수정된 R 제곱 = .008), 동분산 검정 및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 충족
	절편		115.181	.000	
	성별		.902	.343	
	소득수준		.344	.558	
	성별 * 소득수준		1.396	.238	

5. 성별에 따른 금융상품 보유여부

금융상품별 보유정도를 살펴보면, 대출상품 등의 보유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2%, 소액대출 5.4%이었으며, 투자성 금융상품의 보유정도는 펀드가 14.2%, 주식 10.34%, 채권이 1.6%, 추가연계상품이 1.3%로 나타났다. 보험의 보유정도를 보면, 생명보험이 28.6%, 자동차보험이 37.9%, 민간건강보험이 49.2%, 실손보험이 46.7%, 변액보험이 4.7%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보유정도는 24.6%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선불카드는 25.6%, 신용카드의 보유정도는 81.7%로 나타났으며 저축상품의 보유정도를 보면, 저축예적금은 58.0%, CMA의 보유정도는 8.8%, 저축성보험이 21.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유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금융상품은 펀드, 주식(선물옵션 포함),

자동차 보험, 민간건강보험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펀드와 주식,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보다 민간건강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금융상품의 보유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과 펀드와 같은 투자성 금융상품이나 민간건강보험 같은 일부 보험상품의 보유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대출상품이나 연금상품의 보유정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7> 성별에 따른 금융상품 보유여부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빈도 (보유 = 1,)	독립변수				카이 제곱	우 도	Nagelk erke R- 제곱	분류 정 도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선불카드	25.6		**		**	48.07 ***	312.24	.207	73.5
신용카드	81.7			***	**	89.86 ***	213.33	.402	85.5
모바일/인터넷뱅킹 계좌	41.6		***	***	*	138.21 ***	292.33	.476	77.6
저축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58.0			**	***	43.33 ***	387.87	.172	63.4
CMA	8.8				*	22.89 **	166.44	.155	97.2
펀드	14.2	*(-)			***	38.30 ***	220.18	.206	85.5
주식(선물옵션 포 함)	10.3	*(-)		*	*	28.02 ***	183.72	.174	89.0
채권	1.6		*	*		16.12 **	35.29	.330	98.1
주 가 연 계 상 품 (ELS,ELD,ELF,ETF 등)	1.3					14.84 **	28.08	.360	98.7
개인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24.6		***	***	***	68.11 ***	285.63	.288	79.5
생명보험(정기,종신)	28.6		***	***	***	42.06 ***	397.13	.166	65.6
자동차보험	37.9	*** (-)			***	100.48 ***	320.07	.370	76.7
저축성보험(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제 외)	21.1				***	38.23 **	288.75	.177	79.5
민간건강보험	49.2	**(+)		*		19.45 **	410.92	.079	59.9
실손보험	46.7			**		27.75 ***	410.30	.112	61.5
변액보험	4.7					N.S.			
장기주택담보대출	8.2			**		13.56 **	166.28	.097	91.8
소액대출	5.4		*		**	13.07 **	115.47	.153	94.6

*** p<.001, **p<.01, *p<.05

V. 결론과 함의

기존의 연구와 조사들의 결과들에 의하면 여성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며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의사결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금융지식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성별이라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닌 사회적 성관념에 기인한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위험회피성향과 금융이해력, 금융선택행위에 대한 젠더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젠더의 문제는 사회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령 여성이 금융지식이나 위험회피성향이 남성에 비해 낮거나 보수적인 점은 부모나 학교,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사회화과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이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반면 금융이해력 수준은 낮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문화적 선입견을 학술적으로 검증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사회적 변수인 교육수준이나 연령,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회피성향, 금융지식수준, 금융태도 수준은 위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성별효과가 소멸되거나 위 변수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이나 금융지식 수준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교육받은 정도에 따른 지적 능력 그리고 연령이나 소득수준 차이에 기인한 경험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금융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다면 위험회피성향이나 금융이해력 측면에서 젠더의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금융이해력 변수의 하위영역인 금융행동수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성별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출, 재무관리, 신용관리, 금융거래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금융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해 본다. 주부가 가정살림 즉 가계재무관리를 담당할 것이라는 성역할관념이 우리나라 여성의 금융행동과 관련된 금융이해력에 기여하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실전에서 축적한 현실적인 경험이 남성들의 금융행동능력과의 차이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성별은 금융상품 보유여부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펀드와 같은 투자성 금융상품의 선택, 자동차보험이나 민간건강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의 선택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의 결과이다. 즉 동일한 연령대나 소득수준, 교육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투자성 금융상품이나 자동차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민간건강보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이나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관심과 필요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일한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하에서는 위험회피성향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투자성 금융상품 보유에서의 성별 차이는 투자에서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 주변인의 권유 등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VI. 주요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2015),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5.1.30
- 금융위원회(2013),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김성숙(2013), 금융이해력 측정도구의 개발 및 예비조사,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 천규승(2011),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KDI
- 한국은행(2013),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한국은행
- 허경옥, 박귀영(2013), 소비자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도가 재무정보탐색, 가계재무 관리행동 및 경제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1-26.,
- Adhikari, Binay and Virginia E. O'Leary (2011), Gender Differences in Risk Aversion: A Developing Nation's Case, *Journal of Personal Finance*, 10(2)
- Bajtelsmit, V. L. & Bernasek, A.(1996). Why do women invest differently than m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Barber, Brad M. and Odean, Terrance(2001), Boys Will Be Boys: Gender, Overconfidence, and Common Stock Invest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261-292.
- Bertaut, Carol C.1.(1998), Stockhold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Evidence From the 1983 -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80(2), 263-275.
- Calvet, Laurent E, Campbell, John Y, and Sodini, Paolo(2009), Measuring the Financial Sophistication of House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p393-398.
- Demirgüç-Kunt, Asli, Leora F. Klapper, and Dorothe Singer(2013), Financial Inclusion and Leg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416
- Dwyer, Peggy D.1 Gilkeson, James(2002) Gender differences in revealed risk taking: evidence from mutual fund investors. *Economics Letters*. 76(2) p151.
- Felton, James, Gibson, Bryan, and Sanbonmatsu, David M.(2003), Preference for Risk in Investing as a Function of Trait Optimism and Gender.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4(1) p33-41
- Finke, Michael S., John S. Howe, and Sandra J. Huston (2011), *Old Age and the Decline in Financial Literacy*, <http://ssrn.com/abstract=1948627> or <http://dx.doi.org/10.2139/ssrn.1948627>

- Grable, J. E., and M. J. Roszkowski(2007), Self-assessments of risk tolerance by women and men. *Psychological Reports*, 100, 795-802.
- Grable, John, Park Joo-young, Choi, Hyunza(2011), Anticipating Changes in Client Risk Tolerance: A Financial Planning Perspective, *Financial Planning Review*, 49(1),1-28.
- Grable, J. E., Lytton, R., O'Neill, B., Joo, S. H., & Klock, D.(2006), Risk tolerance, projection bias, vividness and equity prices, *Journal of Investing*(summer), 68-74.
- Grable, J. E., & Joo, S. H.(2004), Environmental and bio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finance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5, 73-80.
- Graham, J. F. & Stendardi, E. J.(2002). Gender differences in investment strategies: O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20(1), 17-26.
- Lee, Kevin, Scott Miller, Nicole Velasquez, and Christi Wann(2013), The Effect of Investor Bias and Gender on Portfolio Performance and Ris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Finance Research*, 7(1). 1-16
- Lusardi, A and O.S. Mitchell(2008), Planning and Financial Literacy : How Do Women 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413-417.
- OECD(2012), '*PISA 2012 Financial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OECD: Paris, France.
- Ricciardi, Victor(2011), The financi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f women: the role of negative feelings, The Third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Behavioral Finance & Economics, Sep. 2011
- Watson, John and McNaughton, Mark(2007), Gender Differences in Risk Aversion and Expected Retirement Benefits. *Financial Analysts Journal*. 63(4), 52-62.
- Yao, R., and S. D. Hanna, 2005, The effect of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financial risk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 Finance*, 4(1), pp. 66-85.